

[16] 조 이 속

선생은 조선 중엽 서기 1616년 인조때에 출생하셨다.

본관은 양주요 자는 경휘이며 호는 달봉이다. 부친은 종가선 대부 조상우 선생이시고 출산은 아산이시다. 어려서부터 효자이신 아버지 시암 선생을 본받아 충성심이 강하고 또한 효성도 지극하셨다.

선생의 충성심의 한예로 1649년(인조 27년) 인조대왕께서 승하하시자 국상기간동안 채식만 하셨다. 이로 인하여 이듬해 병을 앓아 세상을 떠나셨다.

세상을 떠나신 후 대덕군 회덕면사무소 앞에 우암 송시열 선생이 찬하시고 동준 송준열 선생이 쓴 '몰세 불망비'가 세워졌다.

그 후 60년후에 충청도 유림대표 김석대등의 상소로 철비도 세워졌으나 애석하게도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현종때는 선생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하고 또 정려를 내려 선생의 부친이신 시암 조상우 선생과 함께 온양읍 온천리 산 18번지에 잇달아 정문이 세워졌다. 묘소는 송악면 수곡리 산 125- 1에 있다.